

김석균 작사, 작곡

D Em A<sup>7</sup> D  
 어느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

G D E A<sup>7</sup>  
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

D Em A<sup>7</sup> D  
 어느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

G D A<sup>7</sup> D  
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

{ A D G A  
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

D F#m G Bm E A  
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앞에 설 수 없었어요

D Em A D  
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

G D A<sup>7</sup> D }  
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